

다시 보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③

同生淨土 愚智行相
동생정토 우지행상
天地懸隔 何如現今學大乘唯心法門
천지현격 하여현금학대승유심법문
專於定慧 免墮凡小心外
전어정혜 면타범소심외
取色分齊之見也
취색분제지견야

는 모두 대승 경론의 이치에 따라 밝게 증명하고, 현재에 전하는 법을 믿고 알아 밝힌 이치와 또 삶으로 나오고 죽음으로 들어가고, 정토와 예토로 가고 오는 이익과 손실을 간략히 분별하였다.

欲入社修心之人 知其本末
욕입사수심지인 지기본말
息諸口諍 辨其權實
식제구쟁 변기권실
不任用功於大乘法門正修行路
부任用공대승법문정수행로
同結正因
동결정인
同修定慧 同修行願 同生佛地
동수정혜 동수행원 동생불지
同證菩提 如是一切 悉皆同學
동증보제 如一切 悉皆同學
동증보제 여시일제 실개동학
窮未來際 自在遊觀十方世界
궁미래제 자재유관십방세계
공미래제 자재유회十方세계
互爲主伴 共相助成 轉政法論
호위주반 공상조성 전정법론
호위주반 공상조성 전정법론
廣度群品 以報諸佛大之恩
광도군품 이보제불대제은
광도군품 이보제불대제은
仰惟佛眼 證此微誠 普爲法界群迷
양위불역 증치미성 범법계群迷

비록 다같이 정토에 난다고 하나, 우자와 지자의 수행은 천지차이니, 이제라도 대승의 유심법문을 배우고 선정과 지혜에 힘써서 범부와 소승들이 마음 밖의 물질이나 분별을 취하는 조건에 떨어지는 것을 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如是則雖曰同生淨土 愚智行相
여시즉수동생정토 우지행상
天地懸隔 何如現今學大乘唯心法門
천지현격 하여현금학대승유심법문
專於定慧 免墮凡小心外
전어정혜 면타범소심외취색
分齊之見也 若是祖宗門下 以心傳心
분제지견야 약시조종문하 이심전심
密意指授之處 不在此限 瑛和尚云

“법륜 굴러 중생 구제

모든 부처의 은혜 갚자”

밀의지수지처 부재차한 기화상운
能悟祖道 發揮般若者
능우조도 발휘반야자
末季末之有也 故此勸修文中
말계미지유야 고차권수문중
皆依大乘經論之義 爲明證
개대승경론지의 위명증
略辨現傳門信解發明之由致
약변현전문신해발명지유치
竝出生入死 淨穢往來之得失
병출생입사 정에왕래지득실

양유불안 중차미성 보위법계군미
發此同修定慧之願
발차동수정혜지원

그리하여 이 결사(結社)에 들어와 마음 닦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본말을 알게 함으로써 모든 논쟁을 쉬고 그 방편과 실재를 분별하여 대승법문을 바로 수행하는 길에서 그릇되게 공부하지 않아 바른 인(因)을 같이 맺고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으며, 행원(行願)을 같이 닦으며, 부처의 땅에 같이 나고 도를 같이 깨닫는 등, 이런 일들을 모두 같이 배워 영원토록 시방세계에 자재로이 노닐며 서로 주인과 손이 되어 서로 도와서 공을 이루고 바른 법륜을 굴러 중생을 두루 구제하여 모든 부처의 막대한 은혜를 갚으려 하는 것이다.

우러러 바라나니 부처의 눈으로 이 보잘것없는 정성을 증명해주고, 이 법계의 무지한 중생들을 위하여 이러한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으려는 원을 내게 하소서.

김원각<시인·역경위원>

그러므로 다함께 정토에 난다고는 하나, 어리석은 이와 지혜로운 이의 수행하는 차이는 하늘과 땅 사이인데 어찌 대승의 유심법문을 배워 선정과 지혜를 닦아 범부와 소승들의 마음 밖의 물질적 차별을 취하는 것과 같겠는가. 조종(宗)의 문하에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비밀한 뜻을 가르쳐주는 곳은 이 처한(此處)에는 없다. 그래서 기(機)화상은 '조사의 도를 능히 깨달아 반야를 발휘하는 이는 이 말세에는 없다' 하였다. 그러므로 이 권수문에서

가까이서 뵈 큰스님

도천스님

화엄사 조실

“일하는 것이 선이요 수행”



◇ 힘이 드니까 수행이 되고, 수행이 되니까 일한다'는 도천스님. 스님은 일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해뜨면 밖에 나가 해가 질때까지 일을 한다. 도천스님의 제자정안스님(뒤) 역시 스승의 수행을 본받아 묵언과 일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

우리나라 12승지(勝地) 중 하나로 꼽히는 충남 금산 대둔산에 소재하는 태고사(太古寺). 대둔산 낙조대 북쪽쪽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태고사를 가려면 구비 구비 돌고 도는 첩첩산중을 지나야 한다.

7일 구례 화엄사 조실 도천(道天)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태고사를 찾는 날, 전국의 가을을 해갈하는 봄비가 촉촉이 내리면서 대둔산은 이내 짙은 안개에 쌓였다.

얼마나 갔을까. 청령굴의 끝자락에서 우측으로 '등산객은 절대 들어오지 마시오'라는 표지판과 함께 태고사에 접어드는 가파른 길이 나온다. 잠시 후, 태고사의 일주문 벽인, 자연석 바위틈으로 한사람이 간신히 통과 할 수 있는 석문이 우뚝 앞을 가로막는다. 이 석문은 '기도하고 공부할 사람 아니면 절에 들어오지 말라'는 도천스님의 경책이 그대로 전해지는 문이다.

108계단을 오르니 모습을 드러낸 태고사는 고요했다. 도천스님 처소는 2차령 법당 옆에 있었다. 겸중 고수인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여러번 스님을 불러 보았지만 인기척이 없었다.

경내를 두어시간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한 스님이 걸어오신다. 도천스님 이었다. 합장 반배를 하고 고개를 드니 저만치 가시던 스님이 한번 돌아보신다. 딱다문 입, 긴 눈썹, 맑은 눈에서 쏟아져 나오는 행렬한 눈빛이 주변을 압도하고 있었다. 스님은 공양주 보살이 건네주는 물 한 그릇을 받아들고 이내 방안으로 들어가셨다.

다음날 새벽 3시, 아침예불을 올리는 도량석 소리와 함께 스님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예불 후 간단한 청소와 이른 아침공양을 마치고 나오니 경내에 작은 소란이 벌어졌다.

어버이날을 맞아 청년불자들이 카네이션을 사중의 스님들에게 꽃이 드리려고 하는데 도천스님이 도통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한동안 이곳 저곳을 찾아 헤맸지만 허사였다. 스님은 경내 어느 곳에도 안개였다. 6시경, 어제의 거센 비바람 때문에 일을 못하고 산에서 내려갔던 인부들이 올라오자 그 뒤를 따랐다.

절벽 낭떠러지 아래로 놓여 있는 사다리를 타고, 다시 밧줄을 이용해 힘들게 계속 아래로 내려가니 큰바위 옆에 도천스님이 서 계셨다.

스님께 다가가 아침 문안을 여쭙니 빙그레 웃으시며 '뭐 하러 여기까지 내려왔어.

일념 정진하면 마음의 지혜 저절로 생기는 법

어디서 왔는가? 아침밥은 먹었고?"라고 자상하게 물으신다. 태고사 불사현장도 보고 스님도 친견하고 싶어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답하자 스님은 다시 울퉁불퉁한 바위를 뜰에 흙을 넣어 다지는 작업을 계속 하시면서 "모든 일은 기초가 튼튼해야 돼. 기초는 잘보이지 않거든.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부실하게 하면 금방 무너져 버리지.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지혜의 성을 쌓는 기도 정진을 하라는 거야"라고 말씀하신다. 목재로 바위틈에 흙을 넣어 다지는 작업은 바로 조각을 짓는 불사의 기초작업을 하시고 계신 것이다.

50여년간 태고사에 주석해 온 도천스님은 6·25전쟁 직후 부처님게 마치 올릴 것이 없어 생각한 것이 도량주변에 잔나무를 심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시작한 일이 50년이라는 세월동안 계속되고 있다.

"힘들지 않으세요?"라고 묻자 스님은 "수행도랑 일으키는데 뭐가 힘들어. 하지만 불사를 억지로 하지 않아. 무리하지도 않고, 되어가는 대로 조금씩 해 왔다. 이곳 태고사는 우리나라 12승지 중 한곳이기도 하지만 많은 선조사 스님들이 거쳐간 수행 성지야. 이 성지에서 보다 많은 불자들이 공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야. 모두들 열심히 공부하여 하루빨리 번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게 해"라고 설명해 주신다.

"왜 평생동안 일만 하시느냐"고 여쭙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말을 앞세우지 않고 행(行)을 우선으로 해 온 스님의 향기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도천스님에게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쓸데없는 것이다. 기도하고 공부하는 데 말이 필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것이 수행이다. 그래서 스님에게는 일하는 것이 수행과 다르지 않다.

잠시 후 스님은 나직히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 달려 있어. 그러니 항상 마음 자리부터 살펴야 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는 것이나 귀기보듯 듣는 것은 아니야.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있거든. 그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열심히 일함으로써 기도 정진하면 마음의 지혜는 저절로 생겨나. 한 마음으로 철저히 신심있고 원력을 세우

면 부처님이 다 도와주시거든. 무슨 고등이 따르더라고 바른 생각, 바른 일로 밀고 가면 반드시 그 곁이 있어. 지혜로 바른 일하게 되면 나도 살고 모든 중생도 다 좋게 돼"라고 하셨다.

스님은 좀체 말이 없으시지만 법문을 청하는 불자들에게 공부만은 힘주어 말씀하신다. 너나 할 것 없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이다. 지혜없는 사람은 쌀, 물, 나무로 밥을 짓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모래로 밥을 지으려한다고 부연 설명하신다.

올해 세수 91세인 도천스님은 일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해가 뜨면 밖에 나가 해가 질 때까지 절을 짓고, 나무를 심고, 도량 주변을 정리한다. 90 평생을 일관되게 살아왔다. 스님은 처음 일을 시작하면 어떤 장애와 경제가 생겨도 그 일이 끝나야 일을 놓는다. 스님에게는 일하는 것 자체가 선이요, 수행이다.

스님은 잠시라도 안일과 편안함을 용납치 않는다. 그게 바로 계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힘이 드니까 수행이 되고, 수행이 되니까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스님의 수행법이다.

스님은 여간해서 밖으로 출타하는 일도 없지만 혹 출타를 하더라도 도량밖으로 나

기도 및 영가천도 범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기도!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여러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x6판/값 3,500원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4x6판/값 5,000원



남국선원장 해국스님께서 알기 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가천도

영가천도

4x6판/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동경·사경천도법, 사십구제,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참회·참회구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풀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요령이 참회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이 책을 읽으시고,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속으로 들어가 는 물꼬를 띄어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x6판/값 3,500원

- <구성> I 업장과 참회 II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III 절을 통한 참회 IV 참회염불 V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VI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영가천도를 위한 지침서 지장신앙·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 뿐 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x6 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에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동경 및 지장보살 예찬,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되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